



2020년 9월 24일
가톨릭 사이타마교구 교구장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12차)

주일미사의 단계적 재개를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무사히,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감염확대는 아직 끝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생각되어지기에, 큰 마음을 먹고, 성당활동의 제한을 조금더 완화하겠습니다. 즉, 가장 해제의 결단에 신중을 기해 왔던 제한인, 「연령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시는 희생을 기꺼이 해 주신 65세 이상의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이외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협력해 주시어, 11월에는 제한해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0월 첫 주일(10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해제 합니다.

「연령제한의 해제」이외의 제한은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 주된 사항을 다시 알려 드리오니 각 성당의 사정을 가미하셔서
감염확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주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고령이신 분, 그리고 지병(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열이 있으신 분, 건강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은, 부디無理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생명을 지키실 것」을 우선하여, 자택에 머물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2. 주일미사 참례의무의 면제는 계속 됩니다.
3. 주일미사 1회 (일본어미사, 혹은 국제미사) 와 토요일의 특전미사의 공개를 허가합니다. 신도가 많은 성당에서는, 특전미사의 참례는 권장하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령제한의 해제에 의해, 거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참례자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확대의 예방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미사가 있는 다른 성당으로의 이동은 할 수 없습니다.
5. 평일미사는 계속하여 비공개로 거행됩니다.

6. 긴급한 경우의 영세나 병자성사, 고해성사 등은 충분히 주의사항을 지킨 후에 해 주십시오. 주교에 의한 견진성사는 당분간 거행하지 않겠습니다만, 급히 필요할 경우, 사제가 주교에게 허가를 받아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임신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이하는 특히 엄수해 주실 항목입니다.

계속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1) 대원칙은 「3 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마스크의 착용, 손씻기와 소독. 미사뿐 아니라, 모든 교회활동은, 이 원칙에 근거하여 주십시오.
- 2) 성당안에서는, 서로의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주십시오.
3 밀 (밀폐,밀집,밀접) 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당에서의 전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당보다 넓은 홀이 있는 경우, 주일미사를 위해 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손 소독, 마스크 착용(사제, 독서자포함), 충분한 거리두기, 환기 등의 감염예방대책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만지는 문 손잡이 등의 소독에도 유념하여 주십시오.
- 4) 성당입구의 성수반은 계속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5) 얼마간, 미사나 모임등 에서의, 성가를 노래하는것은 피하여 주십시오. 오르간연주나 거리를 둔 독창은 괜찮습니다.
- 6) 미사의 봉헌은 얼마간 하지 마십시오.
- 7) 헌금 주머니는 돌리지 마시고, 입구등에 헌금함을 설치하십시오.
- 8) 평화의 인사에서는, 악수나 포옹은 하지 마십시오.
- 9) 성당입구에 「입장카드」를 준비하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체온의 기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감염자가 나왔을 시, 감염경로의 추적이 필요할 때, 보건소 등에 보고할 때 만 사용할 것 입니다. 개인정보이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일정기간, 성당에 보관하십시오.
- 10) 성당입/퇴장시, 미사 후 등에도 3 밀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11) 미사이외의 회의나 모임 등은, 얼마간 가능한 한 피하거나, 적은 인원으로 (10 명이하), 감염예방대책을 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행하여 주십시오. 영세희망자를 위한 신규의 영세교리나 성경공부 등은 위의 「대원칙」의 주의사항이 지켜지는 경우가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